

전기계 소식 / 국내

### '96년 통상산업부 주요업무계획

#### 능동적인 통상활동의 전개와 무역의 확대 균형 추구 등의 주요정책 방향 확정

통상산업부는 ①능동적인 통상활동의 전개와 무역의 확대균형 추구, ②민관 협력의 산업발전체제 정착과 산업경쟁력의 강화, ③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기반 확립 및 ④에너지수급의 안정과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을 주요정책 방향으로 하는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서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해서는

- 10년 단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산업 자유화·민자발전확대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생산·수송 및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석유, 천연가스, LPG, 전력 등 주요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시책을 강화하고, 고효율 기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효율향상 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하고,

-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 2010년까지 계획된 15기 635만 kW의 민자발전사업 중 기본계획이 확정된 180만kW에 대해서는 금년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90만 kW(LNG 2기)는 '97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97년으로 예정된 석유산업 자유화 시행에 대비하여 국내 유종간 가격구조를 국제시장 구조에 접근시키고 유통단계별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 또한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월 장·차관주재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며, 가스·전기·광산 등 분야별로 종합적 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 투자확대를 유도하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하였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정, 공포

#### 설계·감리규정·인정자격제 도입

전기설비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력기술관리법이 지난 12월 18일 오전 국사법사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데 이어 12월 30일 공포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24개 he법령과 함께

통과된 이 법은 전기기술자만이 전기시설물의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력기술인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와 기능계의 기술자격 취득자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학력·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 전기분야의 인정기술자격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관리를 위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설립토록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전기설계업·감리업체 소속자, 전기공사 업체 소속자, 그밖에 가입을 원하는 전력기술인을 회원으로 했다.

## 民資發電, 14개 기업 참여신청

### LNG 복합화력 등 연내 4基 발주

통상산업부는 민자발전사업 참여희망 업체로부터 지난 1월 15일 「계통연계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결과 금번 180만kW 규모의 민자발전사업에 총 14개 기업이 동 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각 전원별로는 LNG 복합화력에 동아건설, LG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금호건설, 유공, 한진건설, 삼환기업, 한국중공업, 한화에너지, 대우, 현대중공업 등 12개기업이, 석탄화력에는 삼성건설,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이 동 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2개 전원에 모두 제출하였으나 5월 30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1개 전원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계통연계 검토요청서란 지난 '95. 12. 27일 발급한 민자발전사업 「제외요청서(RPF)」에 따라 민자발전소와 한전의 전력계통을 연결시키기 위한 계획서로서 민자발전사업 참여자는 이를 반드시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한전은 동검토결과를 3월 15일까지 각 신청자

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오는 2001~2004년 사이에 준공예정인 이들 민자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선정 일정은 5월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각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필수요건심사, 비가격부문평가 및 가격부문평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7월말경에 사업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 1월9일 본사별관 5층에서 55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입찰제외요청서 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96년도 에너지수요관리 투자계획 확정

### 사업초년도인 '96년에는 총472억원 투자, 65만1천 TOE절감

주요 에너지공급사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96년도 에너지수요관리투자계획이 확정되었다.

에너지수요관리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절약 및 부하관리 등을 통하여 에너지 수요를 합리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에너지시설 확충부담재원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법으로서 금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시 반영된 것으로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수요관리의 기법은 에너지절약, 이용 효율향상, 소비자교육, 부하관리, 연료

대체 및 기술개발 등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가격정책, 직접부하제어, 긴급부하조정 등 규제정책과 고효율기기(설비) 설치지원, 교육·홍보 및 정보제

공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 사별 '96년 주요투자내용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효율개선	- 고효율조명기기보급 - 에너지절약기술개발 - 한전자체연구투자등	- 에너지절약기술개발 - 설비 운전모드개발	- 열사용지도 등
○ 부하관리	- 요금구조개선사업(전자계량기교체) - 자율절전 및 하계 휴가요금 조정제 - 빙축열보급 - 최대전력감시장치 개발등 연구투자	- 수요관리 연구용역 - 가스냉방 및 열병합 발전기기 개발 - 수요관리 요금제도 용역	- 지역난방 물회수 - 사용자 교육 등
○ 부하창출	- 심야전력이용조정(축열식냉·난방기기 보급사업)	- 천연가스이용차량 - 연구개발등	-

## 전기계 소식 / 국내

- 우리나라는 아직 수요관리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규제정책보다는 지원정책 위주로 에너지수요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인 고효율 조명기기보급사업 등 15개 사업에 440억원을 투자, 총전력

- 수요의 2%에 해당하는 2,349GWh (58만9천 TOE)를 절감할 계획이며,
-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냉방 및 열병합기기 개발사업 등 9개사업에 31억원을 투자하여 총천연가스수요의 0.8%에 해당하는 6100만Nm<sup>3</sup>(64천TOE)를 절감할 계획이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사용지도사업 등에 1억원을 투자하여 에너지절감을 도모코자 하는 바,

수요관리 투자는 장기적으로 에너지시설투자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입지난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전의 경우는 에너지수요관리 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에 국내 전력수요의 75%정도를 절감(521만kW)할 계획이며, 이는 원전 5기에 해당된다.

# 765kV급 변전소 등 전원개발사업 41건을 승인키로

## 통신부, 제24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

통신산업부는 지난해 12월 11개 중앙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청한 보령화력발전소 남부 회차리장(충남 보령시), 765kV 신가평 변전소(경기 가평군) 및 345kV 월성 울주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1개 전원개발사업을 승인키로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전원개발사업은 대부분 공단지역의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신시가지 조성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전력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역까지 안정하게 수송코자 하는 송변전건설 사업으로서, 이에 투자되는 건설비는 모두 약 5580억원이다.

특히, 이들 사업중 가장 높은 전압의 765kV급 신가평, 신안성, 신서산 변전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설하는 변

전설비이며 기존의 345kV급에 비해 변전능력이 4배 이상으로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의 변전설비 규모도 명실공히 선진국 형태로 변경되

고 있다. 앞으로 이들 사업이 소요부지 확보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에는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전력공급의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 주요 전원개발 사업 내용 요약

건설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사업기간	소요부지
○보령화력 남부회차리장 건설사업	○회차리용량: 1,536만 m <sup>3</sup> ○사업구역의 위치: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송학리 일원 ○총사업비: 58,100백만원	○보령화력발전소 500MW×6기 가동시 발생 되는 부산물인 탄회를 매립하기 위하여 기존 처리장의 용량부족인 1,536만m <sup>3</sup> 의 석탄 회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회처리장 개발	'95.12~'96.12 (13개월)	518,375m <sup>2</sup> (156,808평)
○765KV 신가평 변전소	○변전소형태: 옥외GIS형 ○위치: 경기 가평 설악면 일원 ○총사업비: 684억원	장기전력 계통 구성 계획에 따라 수도권 동부지역 전력수급 안정과 대용량 전력을 수송기 위함	'96.10~2002.6 (69개월)	188,741m <sup>2</sup> (57,094평)
○765KV 신안성 변전소	○변전소형태: 옥외GIS형 ○위치: 경기 안성 고삼면 일원 ○총사업비: 672억원		'96.11~2001.6 (56개월)	261,309m <sup>2</sup> (79,046평)
○765KV 신서산 변전소	○변전소형태: 옥외GIS형 ○위치: 충남 서산 운산면 일원 ○총사업비: 416억원		'97. 3~2001.6 (52개월)	235,315m <sup>2</sup> (71,183평)

전기계 소식 / 국외

**東京電力, DSM 강화  
피크시프트 85만kW 추진**

일본의 東京電力이 수요대책(DSM)을 강화한다. 中小빌딩을 위한 氷蓄熱시스템 『에코·아이스』(Eco-Ice)와 省에너지형의 청량음료 자동판매기 『에코·벤더』(Eco-Vendor)의 보급확대, 요금메뉴의 확대, 수급조정계약 가입권장 등을 통하여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5년간 새로이 85만kW의 피크시프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서 1995년도의 약 310만kW로 피크시프트를 확대할 방침이다.

1995년도의 DSM에 의한 피크시프트효과 310만kW는 최대전력의 약 5%, 100만kW급 대형발전소 약 3기분에 상당한다.

310만kW의 주된 내역은 연간조정계약으로 약 90만kW, 계획조정계약으로 180만kW, 축열조정계약으로 약 40만kW로 되어 있다. 에코·아이스의 도입 실적은 지난 11월말 현재 349호이다. 이에 의하면 피크시프트 효과는 약 4만 3000kW가 된다. 349호 중 '95에 들어 도입한 것은 53호이다. '95년도부터 국가의 이자보급제도와 東京電力의 메이커에 대한 보급장려금(피크시프트 1kW당 3만엔 내지 5만엔)이 실시됨으로써 탄력이 붙었다. 에코·벤더의 도입대수는 지난 11월말 현재 약 670대로 피크시프트효과는 약 300kW이다. 공동개발자인 일본 코카·콜라의 자판 기대치가 중심이지만 금년도부터는 샷보로맥주, 기린음료도 自社の 자판기를

모두 에코·벤더로 바꿀 방침이라고 하며 금년도에는 이 2개사만으로 1만대의 보급을 예상하고 있다.

부하평준화에 유효한 料金메뉴가 계절별시간대별요금 대상을 업무용, 소공장용 『고압전력A』로 확대한다든지 빙축열시스템에 대하여 추가할인·할증방식의 요금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요금메뉴의 확대와 에코·아이스, 에코·벤더의 보급 및 추진 등을 통하여 피크시프트를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電氣設備工事業體  
베트남에의 進出加速化  
日, 해외사업전개를 강화**

일본의 電力設備工事 各社の 베트남에의 진출이 가속되고 있다. 작년 5월에 栗原工業이 전기설비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수도 하노이에 합병회사를 발족시킨 외에 東光電氣工事도 호찌민시에 합병회사의 설립허가를 신청중이다. 또 재작년 7월에 타사에 앞서 호찌민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近電은 제2의 거점으로 하노이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현지의 거점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94년2월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외국투자의 유입이 진전되어 각지에서 인프라정비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신규시장개척에의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대형공사의 元請者가 되는 종합건설 각사에서는 이미 20여사가 주재원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큰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설비공사 각사도 이러한 움직임에 따를 것이 예상된다.

栗原工業은 작년 5월 하노이의 투자·건설회사 탄론과 합병하여 『栗原탄론합병회사』를 발족시켰다. 새회사의 자본금은 31만달러로 출자비율은 栗原工業이 51%, 탄론이 49%이다. 당장은 외자계통의 호텔, 빌딩의 전기, 계장, 공조공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현지건설회사와 합동으로 베트남정부관련사업의 수주도 바라고 있다.

東光電氣工事は 지난달 25일 호찌민시에 대하여 합병회사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새회사는 東光電工, 타이의 합병회사 타이東光과 현지의 상사가호맥스의 3사합병이 된다. 빠르면 오는 4월에라도 신회사를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금년 가을부터 日本系企業의 공장 등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업규모 등은 아직 미정이지만 자본금은 약 30만달러, 출자비율은 東光電工, 타이東光이 60%, 가호맥스가 40%로 될 것 같다.

東光電工에서는 수년동안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시장조사와 합병상대의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력한 거래처의 진출이 예상됨으로써 신회사의 설립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한편 현지공사의 신속한 대응을 겨냥하여 주재원사무소의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近電은 호찌민사무소에 이어 작년 5월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정부기관이 집중하고 日系企業의 진출도 북부의 하노이, 하이퐁을 중심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을 감안, 보다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신거점을 설치하

## 전기계 소식/국외

게 되었다.

『도에네크』도 현지 시공중의 몰량이나 신규수주에의 신속한 대응을 겨냥, 호찌밍시에 베트남주재원사무소를 설치할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당국에 신청중으로 내년도 초에는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월 관계정상화와 ASEAN 가맹 등을 배경으로 하여 각국으로부터의 투자증가가 더욱 기대되는 베트남이다. 途上國 원조(ODA) 개시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의한 대형인프라공사 등도 다수 계획되고 있다. 이들 신규시장의 개척을 겨냥하여 종합건설사 등에서는 '93년경부터 주재원사무소를 개설하기 시작하였다.大林組 등 대규모 5개사를 비롯하여 중견을 포함한 30개사 가까이가 현재까지 진출 또는 허가 신청중에 있다.

종합건설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여 대형프로젝트에서는 조인트벤처로 한 전기설비회사의 현지진출이 이제 왕성하게 되고 있다. 합병회사의 설립, 주재원사무소의 개설과 같이 진출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본국내에서의 내선공사부진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여 해외사업강화의 일환으로서 베트남에의 진출열은 금후에도 거세어질 것 같다.

### 지멘스社, 러시아에 발전장비 공급

#### 가스터빈, 자동제어 시스템 등

독일의 지멘스社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발전소에 총 6억마

르크 상당의 가스터빈과 자동제어시스템 및 발전관련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되는 장비는 900MW 규모의 새로운 발전소 건설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내년 연말부터 상트 페테르부르크지역의 전력공급이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가동중인 드헤르즈헨스크 발전소에는 150MW급 가스터빈과 발전기가 공급되고 옴스크에 건설되는 새로운 발전소에는 가스터빈과 자동제어 시스템 등이 공급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의 에너지부문 협력 차원에서 4개의 합작기업이 설립됐으며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핵발전소 건설프로젝트도 시행중이라고 전했다.

### 日本原電, 佛電力公社 교류협정

#### APWR, 廢爐에 대한 情報교환

日本原子力發電은 지난 1월 12일 파리에서 불란서電力公社(EDF)와 交流協定을 맺고, 新型輕水爐(APWR)의 개발과 原電이 일본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노후원자로의 폐지조치에 대하여 활발한 정보교환을 했다.

불란서의 전력을 한손에 쥔 EDF는 원자로개발에 대하여도 능력이 있으며 『전력회사가 重電메이커를 겸한 것과 같은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선진적인 조치를 받아들일려고 이미

東京電力과 關西電力이 EDF와 협정을 맺고 있다.

이번 日本原電이 체결하는 협정 내용은 ① 신형경수로(APWR)의 개발, ② 기설로의 운전·보수, ③ 원자로의 폐지조치 등의 분야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이다. 우선 매년 한번씩 베이스로 人材交流를 하며 원자력개발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東海發電所의 폐지를 앞두고 있는 原電으로서의 외국이 어떻게 폐로를 추진하고 있는지가 큰 관심거리로 되어 있으며, 이번 협정에서는 이 분야의 정보교환을 활발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원자로의 운전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의 단축화, 트러블정보의 공개 등을 테마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고속중식로(FBR)의 개발에 대하여는 여전히 협정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 日, 電力新時代 개막

#### 新料金, 新事業法...

일본 電力業界의 『新時代』의 막이 올랐다.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신요금, 작년 12월에 시행된 신전기사업법 등, 요 1,2년 사이에 잇따라 나온 制度改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첫해가 된다.

장기적인 전력의 안정공급과 경영의 효율화 —. 인듯 보기에 상반되는 과제 의 해결을 위해 電力各社는 중전 이상의 굳은 결의로 경영에 임할 생각이다. 앞서 公表한 『경영효율화계획』을 어

전기계 소식 / 국외

떻게 실천하며, 이들 과제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 올해는 업계의 동향에 더욱 주목이 집중되는 한해가 될 것 같다.

작년 12월 19일 신요금인가후의 기자회견에서 電力各社の 사장들은 이구동성으로 査定結果에 대하여 『가혹하다』고 했다. 신청단계에서의 잠정인하 비율이 電力10社 평균 3.04%인데 대하여, 인가시 4.21%까지 인하폭을 확대, 인하총액도 4400억엔에서 6100억엔으로 증가되었다.

○ 『가혹한』 사정 결과

査定에 의한 증가분 약 1700억엔 중 이번엔 처음으로 채용된 『야드스틱』査定에 의한 것이 약 920억엔을 차지한다. 수용가에게는 신방식에 의한 査定이 고마운 결과일지는 모르지만 『경영효율화의 성과를 포함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반영하여 신청』한 전력회사측으로 보면 인가내용이 『가혹』한 것도 당연할 것이다.

이번의 『야드스틱』査定은 北陸電力 등 비교적 소규모인 회사에게는 결과가 좋은 편이고 東京電力 등 큰 3개사는 중간 정도이며 東北電力, 中國電力, 九州電力 등 중견회사에게는 가장 가혹한 결과가 되었다. 査定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각사가 처해 있는 사정에 따라 다르나 어쨌든 각사 공히 査定에서 삭감된 분을 금후의 경영효율화과정에서 흡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각사의 경영효율화계획의 내용은 설비투자과 증원억제 등이 주축이 되어 있다. 그러나 종래의 효율화에서 더 나아가 큰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지역의 리딩

컴퍼니인 전력회사의 설비투자과 증원억제는 본고상산업이나 지역의 고용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5조엔에 가까운 전력업계 전체의 설비투자는 어찌보면 지금까지 일종의 경기자극책의 하나로 꼽혀온 경향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 효율화의 철저한 추구를 위해 어디까지 『기업풍토』를 개혁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문자 그대로 금년이야말로 중요한 시기이다.

○ 업계의 一大協調가 중요

동시에 업계의 존립방식도 새로운 시대의 한고비를 맞이하였다. 이번 전기사업의 제도개혁의 핵심 도매(업)발전시장의 자유화는 한결같았던 전력업계에 무엇인가 임팩트를 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타산업계의 관심도 높아서 사전 설명회에는 회장에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참가자가 응집하였다. 電力6社가 함께 265만kW의 전력을 구입하는 계획으로서 업계의 리더인 東京電力에서는 『입찰제도를 통하여 IPP(獨立系發電事業者)로부터 값싼 전력을 구입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荒木社長)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방의 전력회사는 대도시부를 갖고 있어 수급이 팽박한 전력회사에 廣域融通함으로써 自社の 有力한 財源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금후에는 IPP와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라이벌의 출현에 스스로 동의한 것이 되어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복잡할 것임에 틀림없다. IPP의 시장참가를 계기로 경쟁원리가 잘 작용하여 電力各社가 서로 격려하고 노력함으로써 코스트저감을 실현해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不協和를 개치지 않고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체제를 지향하는 업계의 강한 의지와 일대협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 수용가측의 대책도

전후반세기 동안, 전기사업은 여러모로 변모하여 왔지만 9電力體제의 발족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시되어 온 것이 『안정공급』 측면이다. 이번의 제도개혁도 안정공급이 대전제이며 오히려 고령화사회나 고도정보화사회를 맞이하는 상황하에서 전기가 갖는 역할은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송전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력각사는 효율화를 통하여 요금의 저렴화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번 개혁에서 서플라이 사이드인 전력회사측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와 효율화의 인센티브는 도입되었지만 디맨드 사이드 즉 수용가측의 대책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력의 코스트업의 요인인 설비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하평준화가 불가결하며 이에 수용가의 협력이 없어서는 안된다. 금후 디맨드대책의 검토가 큰 과제가 될 것은 틀림없다.

신제도·신요금하에서 금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대처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 공익기업으로서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떨쳐가면서 『純 민간회사』로서의 입장을 어디까지 추구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모든 과제가 집약되어 있는 것 같다.